

## 유모리 온천과 호텔 스기노유

유모리 온천은 비교적 새로 생겼지만 오랜 역사가 있는 강변 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호텔 스기노유를 짓던 1988년에 발견(정확히는 재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가와카미무라는 새로운 고급 호텔을 짓고 있었기에 도시 기획자들은 호텔의 온천장을 위한 수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관한 오랜 기록물을 조사하여 ‘유모리 스기’(온천이 풍부한 삼나무)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주민들이 나무 근처에 있는 샘을 음식 조리나 치료하는 데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설 팀은 묻힌 샘을 되살리고자 잃어버린 수원을 되찾을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오늘날 숙박객과 일일 이용객들은 호텔 스기노유의 여러 탕에서 유모리의 단순온천, 탄산수소염 냉광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장에는 자연석과 편백나무, 심지어 300년 된 금송으로 만든 욕조도 있습니다. 호텔의 노천탕에서는 가까운 협곡이 내려다보이며 객실은 요시노 삼나무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꾸몄습니다.

호텔 석식으로는 여름 시즌 은어 요리 코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호텔 직원이 직접 잡은 은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식당과 기념품점, 관광 안내소인 가와카미 원류 투어리즘 사무소에서도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